

A-PAD 서일본 폭우 피해 지원 현황

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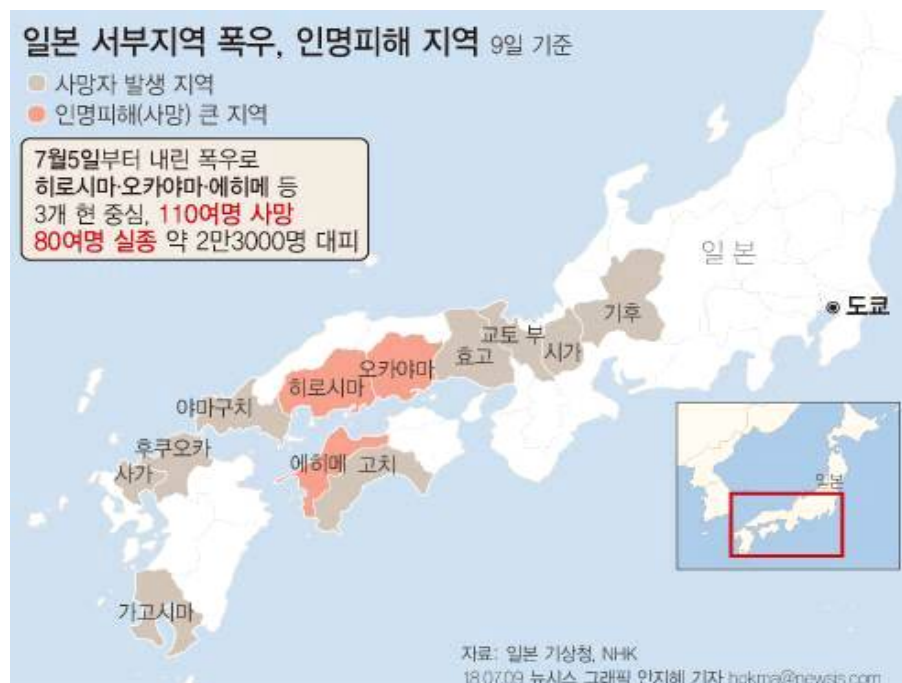
1. 피해 현황

○ 2018년 7월 5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오카야마 현, 에히메 현, 히로시마 현 등 서일본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음.

○ 30년 만에 최악의 수해로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, 40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음. 가장 피해가 컸던 히로시마, 오카야마, 에히메 현에서는 아직도 10명이 행방불명 상태임. (2018. 08. 07 기준)

○ 도로 유실 등의 피해도 큰 상황임.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현재 354개 구간이 통행 불능 상태에 있음. 에히메 현 우와지마(宇和島)시에서는 아직도 1,443세대에 수도물 공급이 끊긴 상태임. (2018. 08. 07 기준)

○ 폭우 피해로부터 1개월이 지났지만, 지금도 약 3,600명의 이재민이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.



(출처: 국민일보)

2. 지원 내용

○ 7월 7일, A-PAD은 폭우 피해에 대응하는 Civic Force와 피스 원즈 재팬 (PWJ)와 함께 합동 긴급 지원 팀을 결성함.

○ 7월 7일 ~ 9일, 긴급 지원 팀은 피해 현장에 나가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였고,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헬기 이송함.

■ 긴급 지원 영상 ①: <https://goo.gl/r4bZGi>

■ 긴급 지원 영상 ②: <https://goo.gl/9MtuAq>



○ 7월 10일부터 히로시마 현 25개 대피소, 약 3,000명에게 물자를 배포함. 수요에 따라 쌀, 음료수, 간식, 의류, 속옷, 선풍기, 비상용 화장실, 생리용품, 화장지 등을 제공함.



○ 각 대피소에 있는 교실을 빌리거나 트레일러를 동원하여 임시 진료소를 마련함. 냉각기 등 설비를 구축하여 24시간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.



○ 히로시마 현 뿐만 아니라 오카야마 현, 에히메 현 지역에 물자 배포를 확대하였으며, 공공 대피소 이외에 피해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음.

끝.